

전남서 전교조 출신 교육장 나오나

완도청산중 정연국 교장, 나주교육장 응모

농성 전교조-교육감 갈등에 선임될지 관심

전남지역에서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 교육장이 전국 처음으로 탄생할지 주목된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나주교육장 공모에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정연국 완도청산중 교장이 응모했다.

나주교육장에는 정 교장 이외에 신기령 나주영강초 교장, 신중식 영암도포중 교장, 윤재욱 전남과학고 교장, 이정석 나주다시중 교장 등 5명이

응모했다.

관심은 단연 정 교장으로 장만재 교육감의 최종 낙점을 받을 수 있다.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이 교육장 도전에 나선 첫 자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정 교장은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지부장을 역임했다. 정 교장은 평교사 출신도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로 2008년 9월 청산중 교장에 임명됐으며 다음 달 말 임기 4년이 끝난다.

교육계 안팎에선 최근 도교육청과 전교조간 긴장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 교육장 선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대해 최대 지지세력이었던 전교조가 7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놓은 와중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갈등 해소나 관계복원 차원에서 이 교육장 공모제가 어떤 작용을 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 교장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등 징계를 받았으며 복권돼 교직을 이어온 상태로 이에 대한 판단도 관

건이다.

정 교장은 고교 통폐합, 무지개학교 등 학력제고 등은 장 교육감의 뜻에 동조한 반면 일제고사 실시 등은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편, 신안교육장에는 김재호(목포) 교육과장, 나순옥(함평) 교육과장, 문상옥(진도)교육과장, 양진옥(현경북초) 교장, 장병호(중마고) 교장, 산이서초 김지석 교장 등 6명이 지원했다.

교육장 심사는 13일 1차 서류심사(본청)를 거쳐 3명으로 압축한 뒤 14일 상호도론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교육감이 최종 2명 중 한 명을 낙점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북 주말 장맛비 '오락가락'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북지방은 오는 1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광주와 전남·북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8일 새벽 비(강수확률 60~70%)가 시작돼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며 "비는 다음주 월요일인 11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고 7일 예보했다. 광주·전남·북 예상강수량은 8일 20~60mm, 9일 20~60mm, 10일 20~60mm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으며, 남해서부 전해상에서는 1.5~3.0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특히 모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서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일 보성 문덕 81.0mm, 화순 이양 56.5mm, 순천 52.0mm, 지리산 뱀사골 42mm, 광주 40.0mm, 목포 27mm, 장수 16mm, 광주 14.5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5분 해질 19시 50분 달뜨기 12시 43분 달지기 --시--분

雨요일

새벽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점차 개겠다.

광주	흐리다	23/27°C
목포	흐리다	22/26°C
여수	흐리다	22/25°C
나주	흐리다	23/27°C
완도	흐리다	23/27°C
구례	흐리다	23/28°C
강진	흐리다	24/27°C
해남	흐리다	24/27°C
장흥	흐리다	24/27°C
순천	흐리다	22/28°C
영광	흐리다	23/26°C
진도	흐리다	24/27°C
전주	흐리다	23/28°C
군산	흐리다	22/27°C
남원	흐리다	22/28°C
옥산	흐리다	21/24°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1.5~2.5m 보통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7:06 12:2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여수 19:49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1:40 07:5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여수 14:26 20:3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7	22/28	22/29	22/30	22/29	23/30

옛 도청 분수대 화제의 누드 행위예술

동구청 '불법' 이유 소품 철거했어야 하나

문화수도 관용성 무색한 자치행정 빈축

광주 동구청이 퍼포먼스 설치물을 불법이라며 철거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낮 12시에 금남로 1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광주 출신 여성 행위예술가 장맑은(31)씨가 '정오의 목욕'이란 주제의 나체 샤워 퍼포먼스를 펼쳤다.

장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분수대를 공중목욕탕을 연상시키는 무대로 설정해, 이곳에서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정화하고자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Shoot! Shoot! Shoot!'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관람객들에게 휴대전화화를 꺼내 '찍어라!'는 이중적 의미를 표현했다. 또 5·18 당시는 군사정권에 의해 외부에 통제됐

만, 31년이 지난 현재는 SNS로 전세계 관객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 하지만 동구시 동구작업 5~6명은 퍼포먼스를 20분 가량 앞두고 분수대에 설치된 풍선과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분수대에 놓인 사다리를 분수대 옆으로 치우고 계고장을 붙였다.

장씨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20~30분을 못 기다리느냐"며 항의했지만, 동구는 설치물을 '불법'으로 간주, 철거를 강행했다. 특히 이 퍼포먼스는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SNS(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진 예술 행사였다는 점에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비난을 불러왔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가 공연 제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7일 정오에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행위예술가 장맑은씨가 누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주영기자 mjna@kwangju.co.kr

결국 장씨는 현수막 없이 분수대 옆에서 계획한 10여분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분수대 위를 점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시설물 파손 위험이 있고, 뾰족한 분수 노즐이 많아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어 철거했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어린이집 통학 차량 시, 운전자 안전교육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7일 "오는 9일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등이 참여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700여 명의 운전기사와 교사에 대해 안전교육에 나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로점용 과태료 면적따라 차등 부과

광주시가 도로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도로점용과 점용료 부과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규정됐으나 최근 '도로법시행령' 개정 법률에 근거해 불법점용 초과 사용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설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점용면적이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 과태료가 상향조정돼 불법도로 점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 불법점용이 만연한 상태에서 과거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며 "이번 조치로 과태료 징수액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점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총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번거롭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드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런(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 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 드립니다.

기준설비용금(사용전력량: kWh)	설치시 청구요금	월 감 요금
8만 원 (약 45 kWh/일)	약 1,800 원	약 78,200 원
10만 원 (약 48 kWh/일)	약 5,800 원	약 94,400 원
12만 원 (약 50 kWh/일)	약 8,900 원	약 111,100 원
15만 원 (약 54 kWh/일)	약 16,500 원	약 133,500 원
20만 원 (약 60 kWh/일)	약 30,000 원	약 182,400 원
25만 원 (약 68 kWh/일)	약 48,000 원	약 202,000 원
30만 원 (약 74 kWh/일)	약 72,000 원	약 228,000 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